

#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56%... 정원미달 정부대책 시급”

교육부, 20년 후 입학인구 31만명 ↓  
교육계 “초·중 예산 가져오면 안돼  
고등교육에 별도예산 마련해야”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국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내에 재정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초·중 교부금 개편을 통한 일부 예산 조정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3년부터는 인구 절벽에 따른 신입생 급감이 예상된다. 교육부 추정 결과 2042년 입학 가능 인구는 현재 대입 정원보다 31만명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교육부가 경고한 대로 20년 이내에 탄탄한 재정구조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 국정과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학부모 및 시민체 등 참여단체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제인 ‘지방대학 살리기’의 실패는 물론, 대학 전체가 재정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교육계는 고등교육교부금법 등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성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OECD 평균의 37.3%,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2위로 나타났

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공교육비를 살펴봤을 때, 한국과 OECD평균의 격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고등교육만을 위한 특별 회계를 따로 지원하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모여 ‘지방교육재정교부

금수호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다만 7일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김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초·중 예산을 가지고 오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에서 원만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예산이 약 3.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일부 예산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함께 제시되고 있는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해서도 “학령인구가 급감중인데,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OECD 평균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에 속한다.

대학의 자생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대학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의 경우 장학금 제도가 탄탄해 실질적인 등록금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한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산학연계를 통한 재정 확충 등이 가능한 대학은 수도권 일부 대학, 특성과 대학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정 부족을 말하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지원의 주요 방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전기차 충전기 3.5만기... 2년 새 4배 증가

서울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53대  
시민참여 부지 발굴로 7040기 접수

서울시가 2026년까지 22만기의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충전기 설치 대수가 3만5000기를 돌파해 약 2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누적 기준)는 2020년 말 8387기에서 올해 9월까지 3만5216기로 확대됐다. 서울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만 3798대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53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환승주차장, 주유소 등 생

활교통 거점에 급속 충전기 2171기, 직장 등 공중이용시설에 완속 충전기 1만 4848기, 아파트·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거지에 콘센트형 충전기 1만8197기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신청을 통해 설치부지 발굴 공모를 시행 중이다. 시민들이 직접 설치를 원하는 장소를 제안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신청은 올해 2월 14일부터 실시해 상반기에 1212개소 1만3774기, 하반기엔 663개소 3266기를 신청해 총 1만7040기

의 충전기 설치 신청이 접수됐다. 이같은 ‘시민참여 부지발굴 공모’는 타 지자체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아울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등에 가로등형 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9개소에도 급속 충전기 2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로등형 충전기는 가로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의 기능이 결합된 급속충전기로 위례성대로, 테헤란로 등 대로변 및 재건축 예정이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한용수 기자 hys@

## 세계 20개국 바이어 송도에 모인다

인천시, 내일 ‘한국마이스 박람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한국마이스박람회(KOREA MICE EXPO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이스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마이스 전문 박람회로 2000년 처음 열린 이후 2017년까지 전국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연속 유치해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2년간 인천 개최가 확정된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세계 20

개국 200여명의 바이어를 비롯해 지역 컨벤션뷰로, 마이스 관련 학·협회, 관계 기업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 마이스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 ▲국제회의 ▲마이스 기업 상설 전시 ▲2022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식 ▲지역 홍보 설명회 등이 있다.

개최도시로서 인천시는 전시관 내에 인천 단독 홍보부스를 마련해 ‘마이스 개최 최적지 인천’을 홍보한다. 셰라톤 그랜드 인천,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 등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13개사가 상담테이블을 마련해 공동 유치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 “공교육 황폐화” vs “교육현안 해결”

교육장관 임명 강행에 업계 ‘이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지만 여전히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장관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교육계는 경쟁교육의 심화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교육현안이 산적하는 만큼 더는 공

석으로 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또 다시 경쟁만능교육과 성과 중심 정책,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이 부재했다”며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4 | 해질 / 17:27

11월 8일 (화)  
음력 : 10월 15일

수도권 날씨  
9~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6/15, 동두천 6/16, 가평 5/16, 파주 5/15, 서울 9/17, 양평 8/17, 인천 9/14, 수원 10/16, 용인 10/16, 평택 7/17, 백령도 9/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집트 기후총회 개막...최대 쟁점은 개도국 온실가스 보상 요구  
▲ 美 중간선거 판세...“상원·하원 모두 공화당 우세” 전망 /사진 뉴스1

▲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도 미국 성인 72% “인플레이에 절약할 것”  
▲ 혼란의 트위터, 일부 직원들 잘라놓고 “다시 돌아와달라”



▲ 메타, 18년 역사상 첫 대규모 감원... “9일부터 수천명 해고할 듯” /사진 뉴스1  
▲ 세계기상기구 “지난 8년 역사상 가장 더웠다”